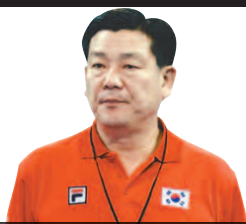


“다른 메달 유망 종목에 취재를 가지지 왜 여기에 오셨어요.”
(여자핸드볼대표팀 임영철 감독, 역대 최악체로 평가받은 현 대표팀의 열악한 상황을 표현하며, 임 감독은 곧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고 땀을 뭉치는 것 같으며 분발을 다짐했다.)



리우의 별 | ‘육상 멀리뛰기 독립신문 출전’ 다리야 클라시나

미모론 단연 금메달…트랙 위 바비인형

모델 뺨치는 8등신 몸매에 팬들 열광
러시아 육상선수중 유일하게 리우행
3년간 미국서만 훈련, 도핑 의혹 벗어

올림픽은 전 세계 스포츠팬들이 주목하는 지구촌 축제다. 극적인 명승부와 그에 따른 휴먼 스토리는 올림픽의 재미를 더하는 요소다.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흥미요소는 바로 ‘미녀 스포츠스타’다. 매 올림픽에선 남성 팬들을 사로잡는 미녀 스타가 등장해 관심을 높였다. 오랜 기간 세계 스포츠계의 대표적 미녀 스타로 군림해온 엘레나 이신바예바(34·러시아·육상 장대높이뛰기), 마리아 사라포바(29·러시아·테니스)의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상황에서 ‘트랙 위의 바비 인형’으로 불리는 다리야 클라시나(25·러시아·육상 멀리뛰기)는 남성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새로운 미녀 스타로 손꼽히고 있다.

●“선수야, 모델이야?”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서 미녀 스타로 이름을 알린 클라시나는 이 대회 여자 멀리뛰기에서 6m50으로 7위에 오른 바 있다. 2007년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라바에서 벌어진 세계 청소년육상대회에서 6m50을 기록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클라시나는 성인이 된 뒤에는 굵직한 국제대회에서 아직 우승한 적이 없다.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 펼쳐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선 6m65를 뛰어 10위에 그쳤다. 개인최고기록은 2011년 작성한 7m5다. 클라시나는 선수로서 국제대회 우승 경력은 없지만 러시아에서 모델 겸 CF 스타로 잘 알려져 있다. 인형 같은 외모에다 180cm에 이르는 키, 운동으로 다져진 탄탄한 몸매를 겸비해 남성 팬들의 눈길을 한 몸에 받았다. 2010년에는 러시아의 한 잡지에 세미 nude 촬영을 한 사진이 실려 자국 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시계 브랜드 세이코의 광고 모델로 활동 중이다. ‘트랙 위의 바비 인형’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리우올림픽에선 비록 메달권 후보는 아니지만, 트랙 위에서 누구보다 많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가 자국 팬들의 비난을 받는 이유
전통적인 스포츠 강국 러시아는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집단 도핑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겼다. 도핑 파문으로 인해 상당수 육상선수들의 리우올림픽 출전 길이 막혔다.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은 68명의 러시아 육상선수단 중 67명의 올림픽 출전을 금지시켰다. 출전이 허용된 유



육상 여자 멀리뛰기의 다리야 클라시나는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 못 남성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미녀 스타다. 집단 도핑으로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육상선수들 중에선 유일하게 리우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 다리야 클라시나는 누구?
▲생년월일=1991년 1월 15일(러시아 트베리 출생)
▲키=180cm ▲수상 내역=2007년 오스트라바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 1위, 2011년 파리 유럽실내육상선수권 1위, 2011년 오스트라바 유럽 U-23 육상선수권 1위, 2013년 구텐베르크 유럽실내육상선수권 1위, 2013년 카잔 유니버시아드 1위, 2014년 취리히 유럽육상선수권 3위

일한 선수가 바로 다리야 클라시나다. 클라시나는 최근 3년간 미국에서 훈련과 광고 촬영 등을 병행하면서 생활해왔기에 도핑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클라시나는 독립선수 신분으로 리우올림픽에 출전할 예정이다. 리우올림픽 출전 허용 소식을 들은 클라시나는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복하다”며 기쁨을 표현했다. 이에 러시아 언론은 ‘배신자’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클라시나는 “러시아대표팀 모두가 올림픽에 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지만, 러시아 여론은 여전히 따갑기만 하다.

●올림픽 미녀 스타, 또 누가 있나?
클라시나 외에 남성 팬들을 사로잡을 미녀 스타들은 또 누가 있을까. 미국 여자축구선수인 알렉스 모건(27·울랜드 프라이스)이 첫 손에 꼽힌다. 2012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모건은 2015캐나다여자월드컵에서도 주전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우승에 크게 기여했다. 모건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sexy한 여자선수’ 상위 순위를 독식하고 있으며, 나이키의 여성 간판 모델이기도 하다. 또 미국여자프로축구에서 가장 많은 연봉(70만달러·약 7억 8000만원)을 받는 선수로도 잘 알려져

있다. 모건이 중심이 된 미국여자축구대표팀은 올림픽 2연패에 도전한다. 여자테니스에선 아나 이바노비치(29·세르비아몬테네그로), 마리아 키릴렌코(29·러시아), 유진 부샤드(22·캐나다) 등 미녀 스타들이 코트를 누빌 예정이다. 그밖에 중국에서 ‘수영 여신’으로 불리는 리우시양(19)도 국민적 관심을 사고 있다.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선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2·연세대), ‘미녀 검객’ 김지연(28·익산시청) 등이 대표적인 미녀 스타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함상명·이은주 ‘하늘이 준 대타 기회’

(복싱)

(기계체조)

리틀 빅 히어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는 전 세계 206개국에서 1만명이 넘는 선수가 출전한다.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모든 선수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겠지만, 큰 어려움 없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낸 선수도 있다. 이와 반대로 가사발길을 거쳐 국적으로 리우행 티켓을 따낸 남다른 사연의 선수들도 있다. 복싱 뱅텀급(56kg)의 함상명(21)은 리우올림픽 예선에서 탈락해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남의 잔치’로 여겼던

올림픽 출전의 기회가 갑자기 찾아온 것은 지난달 중순. 같은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던 다른 나라의 한 선수가 갑자기 출전권을 반납하면서 어렵게 리우행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게 됐다. 한때 ‘효자 종목’으로 불리다 올림픽에서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던 한국복싱은 함상명이 홀로 출전 기회를 얻으면서 자존심을 지키는 행운도 얻었다.

‘마린보이’ 박태환(27)도 리우에 도착하기까지 마음고생이 컸다. 도핑(금지약물 복용)으로 인한 국제수영연맹(FINA)의 징계가 일찌감치 끝났지만,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선수 선발 규정에 묶여 ‘이

중징계’로 인한 범접 다름 끝에 어렵게 리우에서 물살을 가르게 됐다. 여자기계체조 이은주(17)는 대표선발전에서 1위를 차지한 이고임(16)이 리우 현지 적응 훈련 도중 골절상을 당하면서 대신 올림픽 무대에 서게 됐다.

네팔 수영선수 가우리카 심은 지진의 아픔을 딛고 올림픽 무대에 선 경우다. 심은 9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난해 4월 지진 현장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뒤 마침내 올림픽 무대를 밟게 됐다. 2002년 11월 26일생인 심은 자신의 첫 경기인 여자 배영 100m가 열리는 7일(한국시간) 13세 255일이 된다.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 당시 11세의 디미트리오스 롬도라스(그리스)가 세운 역대 올림픽 최연소 출전 기록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번 대회에 출전한 각종 선수들 중에선 단연 최연소다.

정부가 개입해 조직적으로 도핑을 한 것으로 드러나 한때 전 종목의 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위기에 처했던 러시아 선수단에서도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종목별 경기단체의 승인을 전제로 조건부 출전을 허용함에 따라 적잖은 선수들이 극적으로 구제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도현 기자 dhohney@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SNS 속에 비친 리우



미국 체조요정 쿠바선수와 찰카…곤차로바의 맥도날드 망중한
미국기계체조스타 시몬 바일스(왼쪽 사진 원 안)와 러시아배구의 긴판스타 나탈리아 곤차로바(오른쪽 사진)는 3일(한국시간) 각각 선수촌에서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쿠바남자배구대표팀과 함께 한 바일스는 “쿠바 선수의 얇은 키가 내 키랑 똑같아”라고 적었다. 곤차로바는 선수촌 내 맥도날드 맥카페 앞에서 “맥도날드 공짜 커피가 맛있다”라며 밝게 웃었다.

사진 출처 | 시몬 바일스·나탈리아 곤차로바 인스타그램

리우 도로는 주차장…전용차선도 무용지물

Fun & Fun 올림픽

전용차선·지하철 노선도 확장 불가
경기장서 지하철까지 멀어 혼잡 가중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올수록 현지의 교통체증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리우 시는 2일(한국시간)부터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와 VIP 방문객들을 위한 전용차선을 운영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교통정체를 낳았다. 리우는 올림픽 개최 전에도 세계에서 4번째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시로 꼽힐 정도로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다. 여기에 각종 대표팀과 관광객까지 한꺼번에 몰리다보니 오전 출근시간 대에는 20km에 걸쳐 정체구간이 생기려는가 하면, 평균 속도도 시속 15km 이하 수준까지 떨어졌다. 리우 시는 교통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용차선

을 개방하는 한편 지하철 노선도 새로 확장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올림픽 티켓 또는 패스 소지자들만 해당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현지 통근자들은 연말까지 이 노선을 쓸 수 없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분적인 해결책에 불과해 보인다. 지하철의 각 정차 구간이 경기장으로부터 최소 10km 가량 떨어져있어 나머지 거리는 버스 또는 택시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에두아르두 파에스 리우시장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올림픽 성화가 도착하는 5일과 개막식이 열리는 6일, 철인 3종 경기가 펼쳐질 19일과 약 10만명의 방문객들이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폐막식 다음날인 2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또 대회가 끝날 때까지 각급 학교를 휴교하는 등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치안 문제와 지카 바이러스 등 대회 준비단계부터 많은 우려곡절을 겪은 리우 시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다.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리우올림픽 금메달 1개 값은 65만원

올림픽 스타디

銀 494g으로 제작 후 金 6g 도금
조각가 등 전문가 100여명 참여

올림픽 금메달은 4년의 구슬땀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결실이다. 선수들은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국의 국가가 경기장 내에 울려 퍼지는 순간을 상상하며 저마다의 청춘을 온전히 바친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선 금메달과 은메달이 각각 812개, 동메달이 864개로 총 2488개의 메달이 선수들을 기다리고 있다. 메달이 지니는 상징적 가치만큼 이번 대회를 위해 제작된 메달들에는 각별한 정성이 담겨있다.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조각가, 기계공 등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이 한 팀을 이뤄 브라질 조폐국 내에서 비밀리에 메달을 제작했다. 메달을 찍어내는 틀은 조각가들이 2주간 손으로 직접 제작해 세세함을 더했고, 550톤의 무게로 3차례에 걸쳐 메달을 찍어냈다. 그 덕분에 이번 대회 메달 속에는 예술의 아름다움과 과학기술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메달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가치를 갖는 금메달은 사실 순도 100%의 금이 아니다. 온전히 금으로만 메달을 제작했던 대회는 1912년 제5회 스톡홀름올림픽이 마지막이었다. 리우올림픽 금메달은 494그램의 은으로 제작한 뒤 6그램의 금을 덧씌우는 도금과정을 거쳐 완성됐다. 이번 금메달은 현금가치로 환산하면 587달러(약 65만원)이지만, 선수들의 피와 땀이 어린 메달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의 상징이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메달에는 각별한 정성이 담겨있다. 올림픽을 앞두고 조각가, 기계공 등 각 분야 전문가 100명이 한 팀을 이뤄 브라질 조폐국 내에서 비밀리에 제작했다. 지난달 15일(한국시간) 공개된 금메달의 모습.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 | AP뉴시스

브라질 조폐국에서 41년간 수많은 동전을 주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리우올림픽 메달의 주형을 만든 넬손 네이토 카네이로는 1일(한국시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 메달을 제작한 일은 그동안의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웠다”며 “선수들이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오른 모습을 보면 마치 내가 그 메달을 딴 것처럼 감격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서다영 기자

바로잡습니다

2일자 6면 ‘대한민국의 올림픽 도전사’ 기사 중 표 ‘역대 하계올림픽 한국 성적’의 종합순위가 1948년 런던 11위→32위, 1952년 헬싱키 12위→37위, 1956년 멜버른 11위→29위, 1964년 도쿄 11위→26위, 1968년 멕시코시티 11위→36위, 1972년 뮌헨 12위→33위, 1976년 몬트리올 11위→19위이기에 바로잡습니다.